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hell LNG newbuilding tally to rise as owners prepare to ink options

한국조선해양의 LNG선 6척에 대한 수주가 임박했다고 보도됨. Shell사에 용선 목적인 3개의 선주사(발주처)들은 기존 옵션분 6척에 대한 확정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 계약금액은 10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각각 몇척의 LNG선을 분담할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다고 보도됨. (TradeWinds)

## VLGC rates climb as vessel delays and enquires mount

VLGC의 스팟(spot) 운임이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했다고 보도됨. 현재 일일 4만달러 대의 운임을 보이고 있으며 브로커들은 시장에 대하여 "pretty hot" 그리고 "active"한 상태라고 표현함. 6월 초 까지만해도 BEP수준인 일일 2만달러를 하회하던 모습에서 턴어라운드 한 상황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Box rates bounce back faster than expected as lockdowns lift

전세계 봉쇄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컨테이너선 용선료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보도됨. 회복의 기초는 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외중에 선박 공급은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Surprise fall in US inventories provides support for oil prices

미국의 원유재고량이 줄어든 상황이 유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당국이 COVID-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에 우려로 인해 재고량 확충을 지속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도됨. 지난 주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5.31억배럴로 집계됐다고 보도됨. (Upstream)

## 현대미포조선, "전기추진선 혼자 힘으로"

현대미포조선이 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추진 선박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현대중공업그룹은 독자적인 국내기술로 전기추진선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친환경 선박시장 선점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2022년 10월 인도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일본, 스스로 쳐놓은 금단의 문으로

일본 정부의 자국 조선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이 세계 조선업계에 또 다른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됨.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국책 은행을 통해 국내 조선업계를 부당하게 지원해 주었다고 비난해 왔는데, 이제 스스로 설정해 놓은 금단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